발행인 박 슬 음
주 간 허 세 욱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학 보 사
우편번호 131
TEL ☎ 3751(직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270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 우편물 인가)
(허가 번호 제라 85호)

1970년 12월25일 발행
제 149 호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문좃점

급속히 변모해가고 다양화되어가는 오늘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의 구사와함께 보다 폭넓은 이국(異国)을 접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바시아노·조시아노」 아프리칸 대사의 방문은 단순히 학생들과의 대화의 의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전공을 외국어에 할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사설 성장을 위한 온상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가는 이제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심심풀이 2개월여의 긴 동면에 들어갔다. 지난 무학기 동안 학업에 구속되어있던 학생들은 어엿한 해방감을 맛보기 마련이며, 마지막남은 시험을 등등제 치루고 종강파티와 끈이어 년말연시의 화중에 묻을려 버리기 일쑤다.

그러나 심연 좋던 나이를 한살씩 더먹고 또 상급학년에 올라갈 마음의 지세는 가다듬어야 할줄 안다. 왜냐 않은 이 세달간의 기간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방학의 의미를 떠나서 지난 학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매닝 포인트」로써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도 하겠다. 여기에서 상아밥의 주인공들은 한번쯤은 자기방심의 기회를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지난 학년초 새로운 정신자세로 의욕적인 출발을 할 때와 현재의 심취상태는 학생 개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겠으나 한 심심이서 최고하여 볼 때 자기나름의 의도에 상위점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꽃폰 주없이 불만족의 기준에서 전진을추구하는 점을 폭주의 본질성이 작용하였다면 꽤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그 반면 자신의 결점못을 관 반성하고 새로운 의욕을 창조해 내려는 자세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짧지 않은 주어진 시간을 심미력으로는 물계 자신의 능력 개발면에서는 길게 이용함으로써 무엇인가 하나뚜은 체득하여 겠다는 별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모가라는 학과를 보충한다거나, 신체단련에 노력을 한다거나 또 자신의 교양이나 인지를 연마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계획을 세움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바람직한 계획들이 시일에 반비례하는 사례가 없지고는 단언키 어려우며, 오늘이 체장되어 가는 의욕에 제동을 걸수 있고 시정해 나가는 지성의 총명이 작용될 수 있는 자아체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무회하는 데 진보가 있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계획적인면에서 출발한 상태의 무회는 아무 가치가 없으며, 진심심 무회는 다시 반성을수 반함과 동시에 유 더 차원높은 창조적 자기형성을 위해 무회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나름의 「조년」을 찾는다는 것은 범씨 그만큼 자기의 성장을 기약하지도 않과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중의 자기반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바른 이성위에서 정확한 판단가 내릴수 있는 에지를 가지고 우리 모두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반성할 여상을 이 겨울의 계절에 하나뜯 만들어 보자. 그때서, 현재에서 미래를 내라 보는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즉 미래에서 게발된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방향한 자세가 되어야겠다. 2개월여의 방학을 마치고 다시 캠퍼스에 돌아왔을 때, 진정 그것은 지루하지 않을, 짧은 것이었으며 어색함과 무딥삶 없는 자랑스럽 표정으로 학우들을 면밀하게 대하는 자세가 되도록 하자. 불을 위한. 그리고 성장을 위한 동면이 아니라 탄지 방무세에서 친가하는 여의 그며 보의 동면이 되어서는 결말 안되겠다.

제9회 모의유엔총회 성료
국회의장상에 조항수(영 1)군

◇…UN의 기치아래 지구상에서 전쟁을 불식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유지하려는 국제협력의이…◇
◇…상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이것을 구현하기위해 본대학「국제정치 외교학회」가 연례행사로주최…◇
◇…하는 「제9회 전국대학생 외국어모의 유엔총회」가 지난11월28일 내리귀빈및 전국에서 모인 25…◇
◇…개국대표들이 참가한가운데 「중동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라하전당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낮12시 많은 학생들이 회의장을 메운가운데 사회를맡은 홍미주(이·2)양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의 총회에서 박슬음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제정치의 그목표 이해로 말미암아 유엔에서조차 「평화의로」가 상실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최년 유엔총회가 국제정치사회에 있어서의 이상과 현실을 가름하는 계기가 될것을 바란다면서 작곡대표들을 환영했다.

개회식에이어 곧 토의로들어간 이날총회에서 리비아대표 이철수(영·3)군을 의장으로 선출한 각국대표들은 공을 5개국어인 영어, 중국어, 서반아어, 불어로서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프랑스에 의해 제출된 「이스라엘의 점령지역으로 부터의 철수」를 18대3으로 제택하는 등의 아랍계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큰걸리 배려및 장정책을 버림지를 경고하면서 화염에 싸인 중동지역에 평구적 평화군을 조직할것을 촉구 결의했다.

열띤논쟁후에 기진 장쥐에서 김덕교수는 각국대표들의 흉물한 언어구사에를 칭찬하면서 좋대 넓은견해에서 중동문제를 다루지못한것을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거명된 시상식에서 독회의장상은 미국을 대표해서 나온 조항수(영·1)군에게 주어졌고, 방청무군에게는 학장상이, 이근남(서울대)양에게는 의무부장관상이, 윤영표(국문사관학교)군에게는 문교부장관상이 각각 돌아갔다. 또한 이번회부터 새로이 쉴대내서는 그런의 큰걸리 배려및 장정책을 버림지를 경고하면서 화염에 싸인 중동지역에 평구적 평화군을 조직할것을 촉구 결의했다.

열띤논쟁후에 기진 장쥐에서 김덕교수는 각국대표들의 흉물한 언어구사에를 칭찬하면서 좋대 넓은견해에서 중동문제를 다루지못한것을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거명된 시상식에서 독회의장상은 미국을 대표해서 나온 조항수(영·1)군에게 주어졌고, 방청무군에게는 학장상이, 이근남(서울대)양에게는 의무부장관상이, 윤영표(국문사관학교)군에게는 문교부장관상이 각각 돌아갔다. 또한 이번회부터 새로이 쉴대내서는 그런간의 유대강화와 군경제면 강화에 기여한 본대학의 공을 높이 치하해 장사장을 보내왔다.

이는 저중하는 무장간접의 해킵힘무능해와 비힘무라전을 위한 경제장화책의 입증으로 군방국이 전기한 군경수단에 본대학이 최국 효증, 별견을 기증함에 따라 주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본대학은 지난번군방국의 위지에 발맞추어 군용견 한마리를 덕간학적을 으로 기증한 바 있다.

에 의해 주어지는 훈련상은 연세대학교의 윤정오군이 차지했다.

학생군사훈련교육강화
4년간매주 3시간씩

지난 15일 문교부는 현재 전주당 2시간씩 3학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학생군사훈련(그련)을 매주 강화, 심시키로 확정하고 심시방안을 전국 각대학에시 달했다.

알려진 것을 보면 지금까지 군당국이 맡아 왔던 교련교육을 문교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했으며, 그런도 현재의 예비역과 현역을 통합해서 교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교부가 전국 총학장회의를 소집, 시달한 이 강화방안의 원자를 보면 ①훈련시간을 주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되 이를 연속해서하루에 밤도록 하며, ②교련학점은 출석반으로 인정하고 ③훈련과목을 전술학, 입탄학, 화기학 (실사사격포함)으로제택 4년장만 입탄교육 315시간, 전체396시간등 도합 711시간의 교육을 받되 전체교육은 1, 2, 3학년에서 각각 2주, 4학년에서 3주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인종려련에 배비하고, 국기방위를 학생들 스스로가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으나상아밥에서 학문추구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에게 주3시간씩 4개년간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것은 오히려 고려해야 할 문제며 또 교련교육을이용한 학생들에게 병역상 특혜를 주는 조건을 보면 고려해야 할 점이 허박하다 된다는 것이 일반의견 견해다.

석사학위논문 발표회

1970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요지발표회가 지난18일 오전 본관 105호실에서 열렸다. 정인섭 대학원장을 비롯, 각지도교수들이 참석한 이 발표회에 졸업학기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들이 7명으로 오후에 거행된 면접후 최종통과여부가 확정된다.

감사장전해와 6관구사령부에서

지난 1일 제6관구사령부는 군인간의 유대강화와 군경제면 강화에 기여한 본대학의 공을 높이 치하해 장사장을 보내왔다.

이는 저중하는 무장간접의 해킵힘무능해와 비힘무라전을 위한 경제장화책의 입증으로 군방국이 전기한 군경수단에 본대학이 최국 효증, 별견을 기증함에 따라 주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본대학은 지난번군방국의 위지에 발맞추어 군용견 한마리를 덕간학적을 으로 기증한 바 있다.

대학 사령

김덕부교수 면 정치외교학과장
오한진부교수 면 토이취어과장
이희준조교수 면 상경부지도교수
김원오대일감사 임 토이취어과 지도강사
김덕교수 임 정외과과장
김 대학교목사장

1970년12월20일자

서어공개강좌

본대학 서반아어과는 서반아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백학생들을 위해 서반아어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오는 1월11일부터 한달간에 걸쳐 본관 301호실에서 열릴 이 공개강좌는 주교기초를 위주로 할 것이라 하는데 강의는 서어과 3년 장정구, 박한태, 조남윤교등이맡는다고 한다.

근하신년
외대학보사

화란어과 신설

지난22일 문교부에서는 71학년도 각대학 학과증설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본대학은 화란어과를 신설하는한편 외국어학부 영보 학과의 인원도 재조정되었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된 화란어과의 정원은 20명, 그리 러시아어과, 이탈리아어과, 중어과의 3개학과가 작각10명씩 증원하여 러시아어과 30명, 이탈리아어과 30명, 중어과30명으로되고 반면 월남어과가 20명, 포르투갈어과가 10명이 감원되어 월남어과 30명, 포르투갈어과 30명으로 줄게됐다. 이러한 과 정원의 변동은 점점 변하고있는 국제정세에따라 취해진정책으로 관단할수있으며 전체적 인원수는 20명이 늘게되였다.

한편, 본년학부졸업 발표된 사람들이 모두 필요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말하고있다.

조정부 맹연습
일본원정에 대비해서

본대학 조정부는 내년 4월에 있을 전국 각대학 선수권대회와 7월에 있을 일본원정에 대비하여 서울운동장 보트레이닝센터에서 맹훈련중이다.

조정부장인 정록영(법3)군에 의하면 선수12명이 이번 겨울방학중만 무차례에걸쳐 최종 합숙훈련에 들입, 연습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국대표선수로 있는 최신일(독·졸)등등이 코치를 맡는다고 한다.

오학생처장방독

본대학 신입학생처장 오한진교수는 12월19일 독일 학계 시찰차 독일로 떠났다.

독일정부 학술 교류계 초청으로 독일로 떠나게된 오한진 학생처장은 학술교류및 대학 문화 시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제도 속의 자유, 독회 아카데미한 학생활동을 적극지원하겠다고 그 포부를 밝히는 오 학생처장은 긴 겨울방학을 통해 누구나 자기자신을 정리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한진 학생처장은 독일학계 시찰이 끝나는 71년2월말에 귀국할 것이라고한다.

<사진·총회광경. 원내는조항수군>

윈터스쿨개강
총해당인원 733명

본대학 교무처에서는 지난 섬머스쿨에 이어 12월16일부터 윈터스쿨을 개설하였다.

12월30일까지 계속될 이번 윈터스쿨에 교무처 집계에의 하면 총해당인원 733명중 43.7%에 해당하는 320명이 등록하였으며 여기에 2학기말및 종간고사 주가시험 며상자가 포함될 것이다.

지난 18일 신임 김덕 교무처장과 오한진 학생처장은 본보기자와 회견을 갖고 학교발전을 위한 그들의 복안과 학생지도방침을밝혔다. 이자리에서 김교무처장은 급진적인변화는 가급적 피하면서 점진적인 교과과정의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아카데미」란 학칙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차적인 문제의 급진하는 오히려 본원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학기초, 교수들의 장외계획서를 미리 받아 학생들의Teft를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선정, 공고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전공제도와 제2외국어의 효율제인 시간배분도 「교과과정심의회」와 신중히 연구, 필요한후에 필차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외국어 학부와 이문사 외사학부의 존재는 상호보완적인 존재라고 말하면서 본대학에서 양자가 공존하는 것은 오히려 본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고 또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학부의 가장 이상적인 발전을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그의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오한진 학생처장은 이미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 구체적인 문제까지를 거론시킬다고 말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자율성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성인 답게 잘 해줄 것이라고 그의 소신을 나타냈다. 그런데 오학생처장이 밝힌 중요사항을 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지금까지 속동적으로 심시되던 제반 행사를 제거있게 확정, 질적요인하게 학년초에 일정하게 심시하는 대학예제도를 재택해서 학생운에게는 학생수업을 과부하며, 둘째, 현원 「아카데미보남」을 제정, 학생조직을 연구방향으로 지도하고 셋째, 각 과정심의등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신상카드를 비치, 교수와 학생의 거리를 좁히며, 아울러 과외비는학기초 각학과장에게 열람, 각학과의 재량에 의해 사용토록 하며, 넷째, 카운셀링등을장화하고 학생지도비를 인상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학생들의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는것등이다. 그런데 김, 오양처장이 비교적 필기때문에 파란성있는 행정처리와 학생들을 중심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리라는 점에서 양처장의 부임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덕교수>

<오한진교수>

교과과정 점진적 개정구상 김덕 교무처장
대학력(曆)제도 채택 할터 오한진학생처장

윈터스쿨쯤(?)이야

○…윈터스쿨 합격자 발표가 있자 학생들 표정은 천태만상.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교무실에 몰나게 몇아가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당연히 올게 왔다고 놀음하게 수긍하는 학생이 있고, 그런 발표현 아에 동미도 현자는 식으로 나오는 무신경한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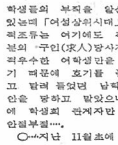
마찬 좋음에 학점 취득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부잡자이란 어감이 역시 말마. 하긴 윈터스쿨 좀 (?) 이야….

○…12월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날씨도 싸늘해지고 시험도 박두하자 각 장외실에는 빈의자들이 사람수보다 훨씬 우세를 보이고 있어 주은 날씨가 더욱 어거지로 흘는데….

그때도 회하나 인어이심림이나 하는 수업중에 치르는 시험시간은 추위를 무릅쓰고 99%이상 출석하여 이제 역시 시험이라면 사족을 못쓰는친구들. 이제 날씨도 차고하니 전바람쐬고 정신들 좀 차리라구요….

○…동학생회 「학생부의 안내소」는 중전의 학생회장단에서 맡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써 학생들의 복지를 앞선해 주고있는데 「여성상위시대」의 시대적조류는 여기에도 파을, 대부분의 「구인(求人)」자사들은 성적우수한 여학생만을 원하고있기 때문에 호기를 놓칠쏘냐하고 달려 들었던 남학생들만 무안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중에 학생회 관계자만 중진에서 안절부절….

○…지난 11월초에 도서관은 열람석을 120석이나 확장, 많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있으나, 시험때마다 좌석이 모자라 이용자들은 자리차지에 불철는 경쟁.



알고 보니 일부 양체족들이 아침 일찍 좌석을 차지각고 마치 전세따도 내앞 가방이나 책등을 놓아 독점하고 있으니, 빈자리는 있으되 앉아 공부할 자리는 없는 형편.

서로 이용할 때만 쓰던 그 말까지 도자라지는 않을 뿐더러 덜시간씩이나 좌석의 가방값자는 나타나지도 않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한학생 투덜투덜. 글쎄요 쉽가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없는것 같읍니다.

○…번역스쉼표거울하말에 캠퍼스 구석구석엔 중장 파리및 졸업생 환송회 포스터가 수선스러이 날리기 시작, 정신 연말이모두들 들뜬 기분이었는데…. 박상 시험이 끝난 16일은 다른 때와는 달리 의미상 버스 정거장엔 버스 놓쳐타기 시합이라도 벌어진듯 혈떡다라 아쉬운 석별의 정에 고로웠을 며날 을 끝났다고. 역시 이별이란 시험성선한 것.

○…동장자리와 며칠이 찾아온 긴 방학, 빙빙 캠퍼스는 쓸쓸하기만 합니다. 오라있을 거기 세우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소음에에 끌리다 보면 또 한해를 넘기고, 한 학년씩 진급. 모두 보람있는 방학생활이 되어야 겠지요.

, 독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기를 크로니클자 빕니다….

이별란 역시 섭섭한것

한국외국어대학

제一九七一학년도 학생모집 요항

一、응모자격
가. 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1년간 이상 졸업예정자
나. 전기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한 자격자
다. 외국에서 十二년간 학교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자 및 그 졸업예정자

二、모집인원
(가) 영 어 ㅡ 각 九명
(나) 중 국 어 ㅡ 각 五명
(다) 러 시 아 어 ㅡ 각 五명
(라) 독일어·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마) 이탈리아어 ㅡ 각 三명
(바) 월남어 ㅡ 각 三명
(사)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아) 스페인어 ㅡ 각 三명
(자) 아랍어 ㅡ 각 三명
(차) 화 란 어 ㅡ 각 三명
(카) 불 어 ㅡ 각 三명
(타) 독 어 ㅡ 각 三명
(파) 일 어 ㅡ 각 三명
(하) 태국어 ㅡ 각 三명
(거) 헝가리어 ㅡ 각 三명
(너) 체코어 ㅡ 각 三명
(더) 폴란드어 ㅡ 각 三명
(러) 스웨덴어 ㅡ 각 三명
(머) 노르웨이어 ㅡ 각 三명
(버) 덴마크어 ㅡ 각 三명
(서) 희랍어 ㅡ 각 三명
(어) 이태리어 ㅡ 각 三명
(저)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처) 힌두어 ㅡ 각 三명
(커)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터) 말레이어 ㅡ 각 三명
(퍼)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허) 아랍어 ㅡ 각 三명
(고) 스페인어 ㅡ 각 三명
(노)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도) 이태리어 ㅡ 각 三명
(로) 불어 ㅡ 각 三명
(모) 독어 ㅡ 각 三명
(보) 일어 ㅡ 각 三명
(소) 중국어 ㅡ 각 三명
(오) 러시아어 ㅡ 각 三명
(조) 한국어 ㅡ 각 三명
(초) 영어 ㅡ 각 三명
(코) 태국어 ㅡ 각 三명
(토) 힌두어 ㅡ 각 三명
(포)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호) 말레이어 ㅡ 각 三명
(구)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누) 아랍어 ㅡ 각 三명
(두) 스페인어 ㅡ 각 三명
(루)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무) 이태리어 ㅡ 각 三명
(부) 불어 ㅡ 각 三명
(수) 독어 ㅡ 각 三명
(우) 일어 ㅡ 각 三명
(주) 중국어 ㅡ 각 三명
(추) 러시아어 ㅡ 각 三명
(쿠) 한국어 ㅡ 각 三명
(투) 태국어 ㅡ 각 三명
(푸) 힌두어 ㅡ 각 三명
(후)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그) 말레이어 ㅡ 각 三명
(느)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드) 아랍어 ㅡ 각 三명
(르) 스페인어 ㅡ 각 三명
(므)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브) 이태리어 ㅡ 각 三명
(스) 불어 ㅡ 각 三명
(으) 독어 ㅡ 각 三명
(즈) 일어 ㅡ 각 三명
(츠) 중국어 ㅡ 각 三명
(크) 러시아어 ㅡ 각 三명
(트) 한국어 ㅡ 각 三명
(프) 태국어 ㅡ 각 三명
(흐) 힌두어 ㅡ 각 三명
(기)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니) 말레이어 ㅡ 각 三명
(디)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리) 아랍어 ㅡ 각 三명
(미) 스페인어 ㅡ 각 三명
(비)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시) 이태리어 ㅡ 각 三명
(지) 불어 ㅡ 각 三명
(치) 독어 ㅡ 각 三명
(키) 일어 ㅡ 각 三명
(티) 중국어 ㅡ 각 三명
(피) 러시아어 ㅡ 각 三명
(히) 한국어 ㅡ 각 三명
(ㄱㄱ) 태국어 ㅡ 각 三명
(ㄱㄴ) 힌두어 ㅡ 각 三명
(ㄱㄷ)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ㄱㄹ)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ㄱㅁ)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ㄱㅂ) 아랍어 ㅡ 각 三명
(ㄱㅅ)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ㄱㅇ)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ㄱㅈ)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ㄱㅊ) 불어 ㅡ 각 三명
(ㄱㅋ) 독어 ㅡ 각 三명
(ㄱㅌ) 일어 ㅡ 각 三명
(ㄱㅍ) 중국어 ㅡ 각 三명
(ㄱㅎ)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ㄴㄱ) 한국어 ㅡ 각 三명
(ㄴㄴ) 태국어 ㅡ 각 三명
(ㄴㄷ) 힌두어 ㅡ 각 三명
(ㄴㄹ)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ㄴㅁ)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ㄴㅂ)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ㄴㅅ) 아랍어 ㅡ 각 三명
(ㄴㅇ)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ㄴㅈ)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ㄴㅊ)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ㄴㅋ) 불어 ㅡ 각 三명
(ㄴㅌ) 독어 ㅡ 각 三명
(ㄴㅍ) 일어 ㅡ 각 三명
(ㄴㅎ) 중국어 ㅡ 각 三명
(ㄷㄱ)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ㄷㄴ) 한국어 ㅡ 각 三명
(ㄷㄷ) 태국어 ㅡ 각 三명
(ㄷㄹ) 힌두어 ㅡ 각 三명
(ㄷㅁ)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ㄷㅂ)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ㄷㅅ)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ㄷㅇ) 아랍어 ㅡ 각 三명
(ㄷㅈ)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ㄷㅊ)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ㄷㅋ)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ㄷㅌ) 불어 ㅡ 각 三명
(ㄷㅍ) 독어 ㅡ 각 三명
(ㄷㅎ) 일어 ㅡ 각 三명
(ㄹㄱ) 중국어 ㅡ 각 三명
(ㄹㄴ)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ㄹㄷ) 한국어 ㅡ 각 三명
(ㄹㄹ) 태국어 ㅡ 각 三명
(ㄹㅁ) 힌두어 ㅡ 각 三명
(ㄹㅂ)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ㄹㅅ)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ㄹㅇ)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ㄹㅈ) 아랍어 ㅡ 각 三명
(ㄹㅊ)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ㄹㅋ)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ㄹㅌ)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ㄹㅍ) 불어 ㅡ 각 三명
(ㄹㅎ) 독어 ㅡ 각 三명
(ㅁㄱ) 일어 ㅡ 각 三명
(ㅁㄴ) 중국어 ㅡ 각 三명
(ㅁㄷ)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ㅁㄹ) 한국어 ㅡ 각 三명
(ㅁㅁ) 태국어 ㅡ 각 三명
(ㅁㅂ) 힌두어 ㅡ 각 三명
(ㅁㅅ)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ㅁㅇ)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ㅁㅈ)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ㅁㅊ) 아랍어 ㅡ 각 三명
(ㅁㅋ)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ㅁㅌ)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ㅁㅍ)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ㅁㅎ) 불어 ㅡ 각 三명
(ㅂㄱ) 독어 ㅡ 각 三명
(ㅂㄴ) 일어 ㅡ 각 三명
(ㅂㄷ) 중국어 ㅡ 각 三명
(ㅂㄹ)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ㅂㅁ) 한국어 ㅡ 각 三명
(ㅂㅂ) 태국어 ㅡ 각 三명
(ㅂㅅ) 힌두어 ㅡ 각 三명
(ㅂㅇ)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ㅂㅈ)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ㅂㅊ)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ㅂㅋ) 아랍어 ㅡ 각 三명
(ㅂㅌ)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ㅂㅍ)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ㅂㅎ)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ㅅㄱ) 불어 ㅡ 각 三명
(ㅅㄴ) 독어 ㅡ 각 三명
(ㅅㄷ) 일어 ㅡ 각 三명
(ㅅㄹ) 중국어 ㅡ 각 三명
(ㅅㅁ)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ㅅㅂ) 한국어 ㅡ 각 三명
(ㅅㅅ) 태국어 ㅡ 각 三명
(ㅅㅇ) 힌두어 ㅡ 각 三명
(ㅅㅈ)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ㅅㅊ)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ㅅㅋ)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ㅅㅌ) 아랍어 ㅡ 각 三명
(ㅅㅍ)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ㅅㅎ)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ㅇㄱ)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ㅇㄴ) 불어 ㅡ 각 三명
(ㅇㄷ) 독어 ㅡ 각 三명
(ㅇㄹ) 일어 ㅡ 각 三명
(ㅇㅁ) 중국어 ㅡ 각 三명
(ㅇㅂ)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ㅇㅅ) 한국어 ㅡ 각 三명
(ㅇㅇ) 태국어 ㅡ 각 三명
(ㅇㅈ) 힌두어 ㅡ 각 三명
(ㅇㅊ)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ㅇㅋ)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ㅇㅌ)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ㅇㅍ) 아랍어 ㅡ 각 三명
(ㅇㅎ)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ㅈㄱ)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ㅈㄴ)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ㅈㄷ) 불어 ㅡ 각 三명
(ㅈㄹ) 독어 ㅡ 각 三명
(ㅈㅁ) 일어 ㅡ 각 三명
(ㅈㅂ) 중국어 ㅡ 각 三명
(ㅈㅅ)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ㅈㅇ) 한국어 ㅡ 각 三명
(ㅈㅈ) 태국어 ㅡ 각 三명
(ㅈㅊ) 힌두어 ㅡ 각 三명
(ㅈㅋ)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ㅈㅌ)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ㅈㅍ)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ㅈㅎ) 아랍어 ㅡ 각 三명
(ㅊㄱ)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ㅊㄴ)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ㅊㄷ)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ㅊㄹ) 불어 ㅡ 각 三명
(ㅊㅁ) 독어 ㅡ 각 三명
(ㅊㅂ) 일어 ㅡ 각 三명
(ㅊㅅ) 중국어 ㅡ 각 三명
(ㅊㅇ)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ㅊㅈ) 한국어 ㅡ 각 三명
(ㅊㅊ) 태국어 ㅡ 각 三명
(ㅊㅋ) 힌두어 ㅡ 각 三명
(ㅊㅌ)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ㅊㅍ)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ㅊㅎ)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ㅋㄱ) 아랍어 ㅡ 각 三명
(ㅋㄴ)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ㅋㄷ)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ㅋㄹ)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ㅋㅁ) 불어 ㅡ 각 三명
(ㅋㅂ) 독어 ㅡ 각 三명
(ㅋㅅ) 일어 ㅡ 각 三명
(ㅋㅇ) 중국어 ㅡ 각 三명
(ㅋㅈ)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ㅋㅊ) 한국어 ㅡ 각 三명
(ㅋㅋ) 태국어 ㅡ 각 三명
(ㅋㅌ) 힌두어 ㅡ 각 三명
(ㅋㅍ)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ㅋㅎ)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ㅌㄱ)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ㅌㄴ) 아랍어 ㅡ 각 三명
(ㅌㄷ)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ㅌㄹ)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ㅌㅁ)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ㅌㅂ) 불어 ㅡ 각 三명
(ㅌㅅ) 독어 ㅡ 각 三명
(ㅌㅇ) 일어 ㅡ 각 三명
(ㅌㅈ) 중국어 ㅡ 각 三명
(ㅌㅊ)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ㅌㅋ) 한국어 ㅡ 각 三명
(ㅌㅌ) 태국어 ㅡ 각 三명
(ㅌㅍ) 힌두어 ㅡ 각 三명
(ㅌㅎ)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ㅍㄱ)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ㅍㄴ)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ㅍㄷ) 아랍어 ㅡ 각 三명
(ㅍㄹ)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ㅍㅁ)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ㅍㅂ)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ㅍㅅ) 불어 ㅡ 각 三명
(ㅍㅇ) 독어 ㅡ 각 三명
(ㅍㅈ) 일어 ㅡ 각 三명
(ㅍㅊ) 중국어 ㅡ 각 三명
(ㅍㅋ)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ㅍㅌ) 한국어 ㅡ 각 三명
(ㅍㅍ) 태국어 ㅡ 각 三명
(ㅍㅎ) 힌두어 ㅡ 각 三명
(ㅎㄱ) 인도네시아어 ㅡ 각 三명
(ㅎㄴ) 말레이어 ㅡ 각 三명
(ㅎㄷ) 페르시아어 ㅡ 각 三명
(ㅎㄹ) 아랍어 ㅡ 각 三명
(ㅎㅁ) 스페인어 ㅡ 각 三명
(ㅎㅂ) 포르투갈어 ㅡ 각 三명
(ㅎㅅ) 이태리어 ㅡ 각 三명
(ㅎㅇ) 불어 ㅡ 각 三명
(ㅎㅈ) 독어 ㅡ 각 三명
(ㅎㅊ) 일어 ㅡ 각 三명
(ㅎㅋ) 중국어 ㅡ 각 三명
(ㅎㅌ) 러시아어 ㅡ 각 三명
(ㅎㅍ) 한국어 ㅡ 각 三명
(ㅎㅎ) 태국어 ㅡ 각 三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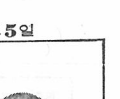
三、출원방법
(가) 응모자격
(나) 입학원서 ㅡ 1부 (서울대학교 본대학 소정의 양식)
(다) 졸업증명서 ㅡ 1부 (원서접수시 제출)
(라) 응시료 ㅡ 1건 (1,000원)
(마) 응시표 ㅡ 1건 (1,000원)

四、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ㅡ 1971년 1월 11일 (수) 부터 1월 20일 (목) 까지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ㅡ 본대학 (서울대학교 본대학 소정의 양식)

五、합격자 발표
(가) 1차합격자 발표 ㅡ 1971년 1월 25일 (목) 10:00시
최종합격자 발표 ㅡ 1971년 2월 8일 (목) 10:00시
(나) 합격자는 발표 ㅡ 1971년 2월 8일 (목) 10

▲ 감씨기에 불란서 시인중에서 「폴 발레리」는 가장유명한 시인이다. 그는 비중시인도 다산(多産)의 시인도 아니지만 순수시인 내지 지성시인으로써불문학사에 ▲뿐이지만 차지하고있다. 「발레리」의 선구자는 미국시인 「에드가알란 포오」와 독일음악가「리샬트 와그너」의 영향을받은 상징주의상시자인 「보드레르」이다. 「보드레르」는 유파가 시트바든 유명한 상징주의의 세시인을 낳았다. 즉 시정시인 「말라메」, 지성시인 「발라▲트레」와 관상시인 「랭보」이다. 「말라메」가 이기는 ▲유파는 피레주의 (미라방스)를 거쳐 「랭그송」의 영향▲을받은 「푸로스트」에 이르고, 순수시의 이론을 정리한 「발라트메」는 「발레리」에 연결되며 「발레리」는 순수▲시의 이론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관상주의시인 「랭보」▲는 「니체」의영향을 받은 「지드」 「아폴리네르」와 「클로델」을 거쳐 초현실주의에 연결된다. 이 3파중에서 보▲들레르—말라르메—발레리는 중심 지보이며 지성적인순▲수시인이다. 이들 지성시인중에서 「발레리」는 자기고▲유의 독창성이있었다.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방법이▲다. 마치 「말라르트」가 수학의 명확성을 모든작품에적▲용시킨것처럼 「발레리」는 수학적 방법을 시에 적용했▲다. 그는 시에서 음악 회화와의 관계를 수학적방법에▲의하여 계산했다. 따라서 그는 시인을 건축가나 연금▲사(煉金士) 와같이 생각했다. 건축가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려 건물이 퇴는것처럼 시인은 단말 하나▲하나를 다듬음하여 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레리」의 수학적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고▲찰하여 보기로하자.

시(詩)에서 본
뽈·발레리의 수학적 방법



문학박사·강사 조 규 철

1. 수학적방법의 표본

가. 『데까르뜨』와 수학적방법

수학적 방법에있어서 「발레리」의 선구자는 「데까르트」와 「에드가포오」이다. 우선 「발레리」가 그의 사상을 좋아했고 그에 배우여 많은 글을 썼다는데주목할만하다. 「데카르트」의 방법 (이것도 수학적방법이라고함) 중 수학적인정확성이 「발레리」의 호기심을 끌었다. 두 사람 모두 정확성을 추구하는데 놀랄만큼 유사하다. 「데카르트」는 「발레리」의 사상 형성에 큰 역할을 했고 합구적요소 정신적인 면에자가 고었다. 「데카르트」는 어릴 부터 수학의 위력을 깊건하고 수학 공부에 골두했다. 그는 모든 학문의 난제를 산술문제 푸는것과같이 그의 수학적 방법을에 응용했다. 마찬가지로 「발레리」도 청년기에 수학 공부에 탐닉하였으며, 수학적, 방법을 시에 적용한드로써 다른 상징주의 파가들이 일지 못하는 명성을얻었다. 그는 수학적 방법이 그당시까지 이루지 못한 발전을 시 분야에 가져올 것으로 확신했다. 「데카르트」나 「발레리」나 둘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들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어떤점에서는「발레리」가 「데카르트」보다 더 엄격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수 있다. 「상드레·모하」도 「발레리를 근대의 데카르트라고 생각했다. (베르나 조르쥬, 발레리의 존재 215페이지 참조) 「데카르트」는 방정식과 수학에서 출발하여 기하학 분석법을 발견했고 「발레리」는 시어의 리듬과 시정에서 출발하여 사상의 분석을 발견했다.'

나. 「에드가포오」와 「발레리」의 방법

「포오」역시 「발레리」의 수학적 방법의 선구자이다. 「포오」 때문에 「발레리」가 수학공부를 하게된 동기가 되었으며 그의 시를 순수시의 경지에 도달케했다.

「발레리」가 21세때「포오」의 EUREKA를 읽고난 후 수학에대한 깊은 애착을 느꼈다. 그는 파리 라틴가 초라한 호텔 벽에걸린 종 밑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학공부를 했다. 그가 19세부터 죽을때까지 읽은 「카이에」(총 29권 매권 천페이지) 에서도 수학문제 방정식및 기하문제등을 볼수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는 수학문제가 많이 눈에 띈다. 또한 그의 수학적 방법을 시에 적용하게 된것도 「포오」의 힘이 컸다. 「포오」가 수학을 기초로하여 난해시를 쓴것과같이 「발레리」는 수학적방법을 시에 적용하므로써 「순수시를 「발레리」는 결코시라고도 부른다) 탄생케 했다. 「포오」의 덕분으로 「말레리」는 보다 순수하고는 정지의 시를 창작하여 보려진했다.

또한 여기서 밝혀 두는 것은 「발레리」의 시를 2갈랗수 있다. 「데카르트」와 「포오」의 영향을 받고 수학적 방법을 시에 적용하기 전과 후의 작품으로 구별할수 있다. 그가 수학적 방법을 추구하던시 즉 23세때 시를 포기했던기간 20년 후에 시를시작했다. 전기 시는 고답파(高踏派)와 상징주의 시인들의 영향을 받은 20세 전후의시이고, 후기 시인 「헤드, 빠고」와 「사르트」는 독창성을 지닌 순수시들이다.

2. 수학적 방법

가. 수학적 방법을 시에 적용

「발레리」는 시에서 영감을 부인하고 기공시적 방법에 의하여 시를 지었다. 그는 도한 「시후의 랑라르메의 방문」이라는 수필에서 「문학은 산술에 비교할수있다. 즉 주관적 규칙은는 구법할수 없는 특수한 결과의 추구이다. 이것이 나에게 문학을 수학에 비교시킨 것이다」 (전집1권 바 리에메 630 페이지). 또한 그는 자기 사상을 정리한 「카이에」에서 「나의 방법의 본질적 사상 (혹은 나의 방법) 은 수학에 지나지 않으며, 수학의 본질이 나의 방법을 형성시킨다.

데까르뜨에게서 많은 영향받아

(제16권 608 페이지) 시에서 그의 수학적 방법은미스터 테스트를 발생시킨데 오냐도 다 빈치의 방법을 연구하던 결과에 힘입었다. 그는 그의 방법을 자기사상을 정리하는데도 사용하여 계산하는 일이라---이보 통 과업이 지성의 운동이다」 (카이에 2권74페이지) 이러한 「발레리」의 태도는 「데카르트」와 흡사하다. 「데카르트」의 경우처럼 수학적 방법은 이것이 아니라 지적 활동을 적용시키는 수법에서 「문학은 산술에 비교할수있다. 즉 주관적 규칙은는 구법할수 없는 특수한 결과의 추구이다. 이것이 나에게 문학을 수학에 비교시킨 것이다」 (전집1권 바 리에메 630 페이지) 이러한 수학적 방법의 본질적 사상 (혹은 나의 방법) 은 수학에 지나지 않으며, 수학의 본질이 나의 방법을 형성시킨다.

<새벽에 서재에서 사색을 정리하는 발레리>

「까이에」는 그의 사상적 총화
기교내지 방법으로 시의 가치인정
영감(靈感)을 부인하고
시는 방정식과 같다
—운율법은 산 술과같고

열렸한 시에서는 시어의음과 의미를 계산하여에정시(冷靜) 하는 방법으로 요약된다. 이과같이 시와 수학의 관련성을 포착했다. 그때 그는 시에 적용하는 그의 방법을 수학적방법이라고 부른다.

나. 수학적 방법과 미의 문요.

수학적 방법의 탐구는체계적인 지성 운동에 불과하다. 관련한면 수학에서 불쉬있는 일거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수학적인 지성을 말한다.

「발레리」는 그의 「카이에」에서 말하기를 「지성의서계는 기하학 세계이다. 어떤 공리나 방정식을 갖는 것이다」 (9권39페이지). 지성의 운용방법은 수학이나 기하학의 일반 공리의 음과 동일시하는 「발레리」는 1892년 (22세때) 부터 「지성의 진화에 대하여, 구체적 지성운용을 신술에서 수학 공리 적용과같은 태도를 취했다」 (카이에21권880페이지) . 이러한 「발레리」의 태도는 이런문제 (시에서 음과 의미를 계산하는것과같은) 해결을 위하여 「주선 그문제를 가지 (可視) 할수있게 만들고, 계산할수있게 수자를 부치기로으로 삼았다.

3. 「앙상블」의 이론

가. 앙상블의 뜻

*앙상블"의 이론 혹은 변형론의 이론이라고 고기서 번역했지만 불어로는 THEORIE DES ENSEMBLES 이고 영어로는 SET THEORY혹은 THEORY OF MANIFOLDS 라고 한다. 이 변형론의 이론은"발레리"가 20세때"에에로 페리느"가 까루셔 주었다. 그는 이때부터 이 이론에중이에」에서 「발레리」는 변형론의 이론을 아래와같이 나열했다. 1) 복잡한 문제의 차이점 2) 기본적인관계 3) 불변의 보편성 4) 기호화 부필 필요및 체계적인 기호의 논리적인 원칙 5) 식별할수 있는 기호및 동일한 변형할수있는 기호 6) 문제의작소소및그의기호 7) 양적, 수적적, 질수적적변형 (제1권225페이지) 이리하여지발레리는수학을 양(量)의 학문의 성질 말한다.

「발레리」는 그의 「카이에」에서 말하기를 「지성의서계는 기하학 세계이다. 어떤 공리나 방정식을 갖는 것이다」 (9권39페이지). 지성의 운용방법은 수학이나 기하학의 일반 공리의 음과 동일시하는 「발레리」는 1892년 (22세때) 부터 「지성의 진화에 대하여, 구체적 지성운용을 신술에서 수학 공리 적용과같은 태도를 취했다」 (카이에21권880페이지) . 이러한 「발레리」의 태도는 이런문제 (시에서 음과 의미를 계산하는것과같은) 해결을 위하여 「주선 그문제를 가시 (可視) 할수있게 만들고, 계산할수있게 수자를 부치기로으로 삼았다.

4. 계산과 숙련

가. 시에서 숙련

수학적 방법을 다른말로 표현하면계산과 숙련이라고 할수있다. 「발레리」는 독립 시를 계산과 숙련으로생각했다. 그의 이러한도덕은 시에서 적절한음악적효과를 얻을수 있었다. 그는 「장 랭보」에게보낸 편지에서 「계산하지않고 들주곡 (眞走曲) 이나 포함곡을 쓸수 없고, 시인은 시를쓸때 필일없는 계산과 숙련이 요청된다」 (편집 시와 음에게 보낸 서한, 234페이지) . 그는 수학적 방법을 시에 적용함에 초기 역을 넘어서 유추의 분야에까지 확대시켰다. 그의수학적 방법의 기본은 수학적 정상적인 것 뿐만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분류한 요소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계산하여 변형시키는것이다. 즉 변형론의 이론은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한 정밀적 요소의 특징을 가공보편적 방법으로 조직하는일이다. 이러한 시도 없이는도저히 접근할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도 간이한 요소로 변형시킴으로써 단순화된다.

나. 변형론의 이론과 정신운동

「발레리」는 이 이론을인간의 지성과 정신에적용시켰다. 그는 지성의수학을시도했다. 수학을 논리시세로 운심시킨한상을 받구했다. 그의 「카이에」에서 「우리기정신의상에 기호를 붙임으와 있는데수학은 정신한상의기록이다」 (제3권102페이지) . 변형론 이론의특히도 정신현상의기록일뿐아니라, 이를 보편적인 것으로분석한에 이미 일려진 다른요소로변형시키는때있다. 「발레리」는 1892년부터이러한 방법을 정신현상에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시도를 위하여 「발레리」는형신현상을이미 알려진 체계적인기호로서 미해하였다. 우리는 내적인 면이라도보편화시켜 체계적으로 정분석한다면 인학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5. 「앙상블」의 적용

가. 시에서 앙상블의 이론을 아래와같이 나열했다. 1) 복잡한 문제의 차이점 2) 기본적인관계 3) 불변의 보편성 4) 기호화 부필 필요및 체계적인 기호의 논리적인 원칙 5) 식별할수 있는 기호및 동일한 변형할수있는 기호 6) 문제의작소소및그의기호 7) 양적, 수적적, 질수적적변형 (제1권225페이지) 이리하여지발레리는수학을 양(量)의 학문의 성질 말한다.

「발레리」는 그의 「카이에」에서 말하기를 「지성의서계는 기하학 세계이다. 어떤 공리나 방정식을 갖는 것이다」 (9권39페이지). 지성의 운용방법은 수학이나 기하학의 일반 공리의 음과 동일시하는 「발레리」는 1892년 (22세때) 부터 「지성의 진화에 대하여, 구체적 지성운용을 신술에서 수학 공리 적용과같은 태도를 취했다」 (카이에21권880페이지) . 이러한 「발레리」의 태도는 이런문제 (시에서 음과 의미를 계산하는것과같은) 해결을 위하여 「주선 그문제를 가시 (可視) 할수있게 만들고, 계산할수있게 수자를 부치기로으로 삼았다.

서정적인 시에 큰 비중
사회비평에 중점 둬
브라질 포도아

포도아 문학을 중심으로한
브라질문학의 생성과정및 비교론
포도아어과 2년 오 중 근

Pedro Alvares Cabral 이 1500년 브라질을 발견한후 같은 언어 즉,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은 문학 활동에있어서 수 백년 중간일 접한 관계가 있어왔다. 그 문학 형태는 단편적으로말해서 포르투갈이 특히 주아 하고 백년이 넘기는 시에 훈 비롯이 있는 반면 보라질 문학은 사회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일어난작품을 통해서 이 부나라는 서로 독자적인 문학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포·백문학을 비교하면서 살펴 보기로한다.

포르투갈인 즉 부시타니아(Lusitania) 민족은 비약적이며 공상적이어서 문학도 이스파니아 문학이 현출적으로 사실주의인데 비해, 서정적이다 할수있다. 포문학 전통은 고유한 특징이에다만 오스가 가미된그리스~로마문학으로 부터 생겨나. 초기의 포문학은 대다른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12세기부터 진정한 의미의 문학이 시작됐다고볼수있다. 12C~13C 중간에포도아의 고유한학이 개발할수있는 것은 Chacras라고 불리우는 민속음악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성실하고 용기있는 포도아국민을 보여주는데 특징이 있다고 볼수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포도아 문화면에서 상한 관심을 보인 왕이있었는데 바로 D. Dinis왕이다. (1261~1325) 그는 대학을 설립했어 그 당시 라틴어로밖 모든 문인들속에 즉 포도아어로 바꾸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자신이 훌륭한 시인이었던 D. Dinis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힐수 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서정시를 썼으며 다른 시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들 모은 가집 (歌集) 을우리는 Cancioneiro라부른다. 15C에는 중중이 주로 국민문학의 본상시이며 근원이 되었다고 볼수있겠다. 이런 과정을 뜬채서 그시대에 조무가 되는 역사를 기록 하는데 있어 산문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역대기는 문학할 만한 문학의 한 형태라고 볼수있다. 16C 문학은 주로 고전에 관심을 보였다. 포도아에서는 주로 불란서풍의서정시인 일차가 16C가지지 배워있고, 시인 Sa de Miranda (1485~1558) 가 이태리풍의 전원적인 시형태를 들여오고서부터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는 고전을 연구하는 학당을 세웠으며 여기에서 많은 작가들이 계승해 전념할수 있었고, 함종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기여했다. 그의 뒤를 이어프라 Luis de Camoes (15 24~1580) 이다.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서사시인을 꼽히, 단테, 노가지오와 일컫고 있는데, 그는 이 두 분에 필수있는 그야말로16C의 세계 최대의 서사시인이라 볼수있겠다. 그는가리시아의 귀족집안의 핏줄을 이어 받았으며 아마도 리스본에서 태어 났겠 같다. 성장후 그는 당시 유럽에서 학문의 가장 유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Coimbra대학에 다녔으며 그는 여기에서 고전문학에 탐닉했으며 아마도 그리스 문학에도 열렬한에 학을 가졌으리라추정된다. 1547년에 군인으로서 북아프리카, 인디아, 그리고 주여는 마카오카지 헐정됐으며 그의 아프리카 전투에서 눈조지도 오른쪽 눈을 잃게된 부상을 초래했다. 그의 최대의 작품인 Os Lusiadas (Os Patugueses) 는 1572년 출간되었다. 이 발시에 D. Sebastioo 왕은 <로세바스찬<그에게 연금 1,5000reis를 보상했을 정도였다. 그럼에 이 작품은 포감박 여명이나 혹은 타 문지방의 세부풍인에 반영되어 주목된다. 이것은 포도아인의 역사와 영웅들을 찬양하는 긴 역사 시 시시인것이다. 이 발라라에서 사시는 바스코다 가마외인도 한해가지를 포함해서 <루이스·드·카몬이즈> Luis de Camoes시대루에 오 명풍한 포도아의 작가들은 소넷 (sonnet) 형식과 남만 형인 산문식으로 작품을발표했었다. 그 이후의 작가로서 Almeida Garrett (1799~1854) 는 16C에 힘제 상태를 보였던 포도아의작 에습을 수용시킨 작가바살 수 있다. 그는 초기 1800년대의 훌륭한 시정시인으로 꼽이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인물은<길·바센트> Gil Vicente이며도 가장 중요한 작가인<조세·드·카이포즈> Jose de Queiroz (1843~1900) 로서 그는 포도아의 탁월한 사실주의적소설가로 꼽히고 있는데 그의 소설과 담편에서 훌륭한 묘사를 함으로서 그당시의 소설 형식에 깊은영향을 끼쳤다고 볼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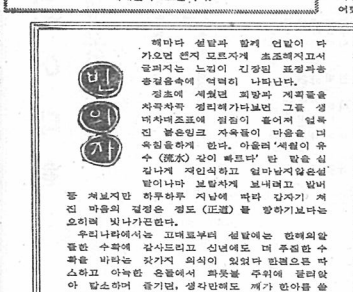
마음으로 문학의 역사가 깊이 포도아에 비하여 굉장히 짧음에도 포도아의영기되는 정치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번 필치로서 시적인 풍자를 통해서 그의 작품을 시술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브라질의생활의 전면적을 그린 최초의 작가라고 볼수있겠다. 18C 중엽까지 내려오면서 브라질 문학은 자신의 포도아의 식민지로서 경제적으로나 지식면에서 포르투갈의 거대한 영향을 받아 싶음이 틀림없다. 1750년부터 1830가지의 80년 동안은 브라질의 문학이 검사자지의 성지순례주제로있는데, 이 시대를 한나라의작도기의문학 활동시대다 볼수있다. 1830년부터 187 0년사이에는 불란서 영향을 받은 남만파인 문학형태로 변형되는 기간이라볼수있으며 1870년 이래는 남은 의미에서 법학인적인 의무형정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학자가 생겨나고있다. 식민지 시대부 자도기의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작가들은 Gregorio da Mattos Guerra와 Brasilio da Gama등이며, 남만주의의 변형되는 기간에는 가장위대한 서정시인으로 Gonsa lves Dias로 대변된다. 그러한 남만주의적 조무는 여시 브라질의 소설을 탄생시켰다. 이 당시의 브라질 문학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Joaquim de Assis (1 839~1908) 로 볼수있는데 그는 비관한 기정에서 태어난 흔들아 (mulato) 였는데 그의 중요한작품들은 Bras Cubas, Quin as Barba, Dom Casmuno등이다. 이 작품들속에서 그의 날카로운 풍자와 사회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Euclydes da Cunha (1866~1909) 는os sertoes 라는 작품을 통해서 보라질 내륙지방의 처량한 모습을 여실히 문학작품에로 변형되어 이런의미에서 그는 참로문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 외의 많은 작가들은 보라질의 방대한 영토에산재해있는 여러지역 이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상황을 소설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으로 보라질 문학사상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작가는 Erico Verusimo로서 그는현존하는오늘날 가장인기있는 작가로서 소설상의 인물과 구성 (peot) 에서지배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그의 소설은 특히 남부지방 (Rio Grande do Sul) 의 여러 상황을 취급한 소설을형성시킨다. 또한 보라질 문학에서 엿볼수 있는것은 역사문학의 형태에 있어서 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것을 볼수있다. 저금까지의 포·백문학을 간략히 고찰한데 미소한 면을 다루었다고 생각된다. 필으로 포·백문학은 20C부터에 작자의 독특한 문학 활동을 전개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본보 광고 문의는
96 3 7 5 1

식민지 특유의 풍자문학으로표현
성직자들의 영향받아

외대만평



도 토 리 군

새해인사 드립니다.

빈 인사

해마다 설날과 함께 연말이 다가오면 언지 모르게 초조해지고서 글피지는 느낌이 긴장감 표정과는 중절음속에 역력히 나타난다.

정초에 세웠던 희망과 계획들을 차곡차곡 정리해가다보면 그들 생명차례조로에 점점이 흩어져 일목요연 불응일그 자유들이 마음을 더욱 슬퍼하고 한다. 아울러 '세월이 유수(流水) 같이 빠르다' 탄 말을 실감케 제인식하고 일마남지않음설 받아나가 보탈차게 보내려고 밤이 등 체보지만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갈지기 겨진 마음의 결정은 정도(正道)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빗나가진따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부터 설날에는 한해의일을 돌한 수확에 감사드리고 신년에도 더 주점한 수확을 바라는 찬기지 의식이 있었다 만큼은 막스하고 아늑한 음절에서 파동불 주위에 둘리앉아 밤소하며 즐기면, 생각만해도 꿰가 한아름 아지는 듯한 정다운 분위기에서 '즐겨만 막스단 거음' 을 지내왔었다.

세월이 지남에따라 의, 식, 주와, 사회구조의 변화, 풍물풍심의 생활방식이 주선 (匿先) 하여 현재 도시에는 자기중 중심리트벽, 거부위위한 아스팔트와 고가도로, 싸늘한 수은등들이 비록 도시의 근대화를 상징해 줄지언정 우리 세인 (世人) 에게서 아늑한 거음을 빼앗아 버린것은 서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때서 우리는 하안 논이라도 정평 솔아져 생이면 거주 거음을 맞볼수 있을텐 생상의 밀림하의 기운으로 일순 (一瞬) 피부에 와 닫는, 즉이 쉽시적인 감각만으로, 거음이 주는 심오한 운치를 이해할 수가 있다.

대육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은 문명이기의 잔해는 매기의 오염이라는 가공할 만한 공해 (公害)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한 일부 지질학자와 북극해의 얼음이 점점 녹고있다, '혹은 '지구 멸어리는 조람해 머쥐지고 있다.' 는 선빔설 있는설 (說) 이, 그리고 삭막해지기만 하는 인정 (人情) 의 고뿌, 야박한 세상사가 우리에게 '마찬하지만 자기을 거음'이라는 아이러니컬한 의미를 던져준다.

이러한 세태 (世態) 의 변화는 정신자세에가지 경부되어 두서의 혁마를과 무계획적인 사상이 만연하는 중조를 낳고 있다. 조등히 '사색에 잠기어 계산하는 일이다---이보 통 과업이 지성의 운용이다」 (카이에 2권74페이지) 이러한 「발레리」의 태도는 「데카르트」와 흡사하다. 「데까르트」의 경우처럼 수학적 방법은 이것이 아니라 지적 활동을 적용시키는 수법에서 「문학은 산술에 비교할수있다. 즉 주관적 규칙은는 구법할수 없는 특수한 결과의 추구이다. 이것이 나에게 문학을 수학에 비교시킨 것이다」 (전집1권 바 리에메 630 페이지) . 또한 그는 자기 사상을 정리한 「카이에」에서 「나의 방법의 본질적 사상 (혹은 나의 방법) 은 수학에 지나지 않으며, 수학의 본질이 나의 방법을 형성시킨다.

社 告

외대문학상 현상작품모집

제9회 외대문학상

마감반드

"부상(副賞)도 크게 올려"

이번으로 아홉번째를 맞는 「외대문학상」은 그동안 외대의 외정시계발과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한국문단에 참신한 인재배출을 위해 기여해 온바 그 공이 큽니다. 특히 지난해에 번역부문을 추가하여 큰성과를 거둔데이어 이번에는 부상을 크게 인상하여 외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상의 권위를 위하여 작품 가작을 폐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용
소설 (200자원고지70매내외) 25,000원
시 (1그 2편이상) 10,000원
번역 (제한없음) 15,000원
수필 (30매내외) 7,000원

마감 1971년2월28일
발표 1971년3월중
심사위원 추후발표

외 대 학 보 사

미국의 대학생활

영어과 조교수 이 영 걸

기숙사를 중심으로 독립된 단체생활

진지한 학습태도본받아야

미국의대학생활은기숙사중심으로 진개된다. 대부분의학생들은 온가족과 부모의 권위밑에나면 곳의 대학으로 와 독립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다. 저금학년입수록 기숙사 내의 규율이 캬다졸지만 지나칠 정도는 아니어서 자립심을 기른다는 인점이 있고 그는자신 Maturity 라는 면에 배우 자의식적이다 단체생활에 따르는 불편은 있지만 시간적으로 배우 경제적이어서 그아말로 「학생」에 이상적인 장식인 가장에 학교당국은 Undergraduate들에게는가급적이면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요구한다. 기숙사에는 특옥신세학실 유엔신이 구비되어 있고 커피 청만을무수들의 권매기가 있는 오락실이 있고 관리관린 하시설이 되어있다.

식당에서 먼저 식사가 끝난 경수 상대방을 위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버리는 것이심례가 되지 않고 선학없이 방문한 친구를 위해 공부를 중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책상에 붙어 앉아있지 않으면어서 용무를 보고 나가달라는 암시인 것이다. 동양인에게는 좀 박정스러 느껴지지만 그들은이렇게 분명주의 (忠先務) 를 처리하는 것이다.

교과서, 학용품,레코드등을 관매하는 문방구점 서점이 캠퍼스에 있다. 등록금 필한 학생들이 귀장 가는 곳이 이 교내 서점인데 매 과목 앞 서넉뭔권을 넘기 마련이다. 특히 역사, 문학, 철학등의 과목인경우 저렴한 페이퍼백을 한아름 안고 나온다. 이 페스트 팔고도 도서관에는 담당교수가 연도로 된 참고서적이 있다. 배우 다양 (多樣) 이기 때문에게 책과 방법이 없이는 학기 도중에 낙오된 수려가 있다. 정독보다는 다독, 번질나 시험과 숙제, 그리하여 학생의 생활은 연일 캠프로 학기말로 밀린하게 마련이다.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나 「안나카레니나」 작품 발매한 작품에도 고작 한두주일이 할당되는 것이다.

도서관은 개방된 서가로 되어있어 독서의 의욕을 북돋우는 한편 어떤 이에게는 중압적인 효과도 안겨줄 것이다. 평소에는 비교적 한산하고 시험 때 붐비게 마련이다. 도서관의 벽은 圖書를 이루기도하고 소장장에서는 외부인사의장연과 시인들의 자작시 낭독도 열린다. 이 장주 청중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시낭독은현대시의 어려운 배문이기도 하겠지만 흔히 앉아 어슬렁게읽는것 같지는 않다. 약 한시간 듣고 나면 입술한 기분이 피는데 그래도 보람있는 경험으로 느끼는 것이다.

박물관 부입이 있는반를 학생은 무엇이냐?」등의 깊이있는 문제는 숙 차원에서 보라는 설학시간에 오른다. 외국인이 자주 듣으며 우유제지는자 말을 「이 나라는 어떠한나라」라는 권에 박은 질문이다.

전부지잡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어 학생들은 선생의 시부설을 찾을 수 있다. 선생의 인격에 바라 배우 인간적인 분리기를 할 수도 있으나참 은 대학에서 한 대학으로 옮학생들은 피상적이고 비인지적이라고 불렀닣 부전심을 토로하나 제도 보다는 인간이요. 여말로 전부지간에 선진한 대화를 기대한다는것이 지나친욕심이 아니겠는가. 필 수 있는 한 인정있는 권계한 유지하며 어떨 수 없는 거리는 인간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인이다.

중동지역의 대학생활

국제사정연구소장 유 정 연

동서 문화 교류와 흡수의 용이점

국제대학사회형성되어

카이로·아메리칸 대학의 敎 務부소부로 부임한 그곳에 드 하여 것이 1961년 9월이었으며 그후 4년간을 이 大學生활과 보내는 중간 이모저모 느낀바가 많았다. 이 대학은 1919년에 미국선교사가 설립한 미국식교육을 도입하여 아랍인그로 유에 공헌이 큰 대학으로 현재로 종교적인 관계는 없어진 사립재단으로 운영되고있는 에집트의 유일무이한 사립학교이다. 3천명이 넘는 인구를 지닌 에집트이지만 대학敎라고는 損指의 정도이다. 가장 오래된 이스탄조系 대학으로 「엘·아즈헤」대학, 카이로대학, 에인·샤메학 알면샤드린이만학, 그리고 아시뭇대학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국립대학들로 카이로·아메리칸대학이 사립대학으로 존재하고 역시 미국인이 설립한 카이로·아메리칸女子初級대학이 있으나 수년전에 국유화되어, 현재도 국립초급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4년간의 중등대학에서의 교수생활과 주택 부임계 느꼈던 점이 몇가지 이었다.

첫째로 중국의 지리적인 위치에 기인하여 보수적인 밀리즈(Millis)문화와 개수의 용이성이란 이질이 대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있는것 했다. 교육과 학생생활에 대양심을 던져주고 있으며 대학사회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있 했하는 점이다.

둘째로 근대적인 문물의 흡수가 용이했고 또 우리보다 발빠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학생활의 생활이 점차정한하면서도 책 자율적으로 또 자유롭게 형위로이 나가고 있었는는 점이다. 카이로·아메리칸대학에서 특히 그런 느낌을 받는다.

셋째로 옥심이 넘쳤은 아랍 대학생들의 의욕이 구사 높여이며, 내가 아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3개국어 정도로 모두 자유로게 사용하고 있었다. 아랍어는 물론, 미국 대학이나라 영어는 모두 할수 있었을 뿐 아니 이었고, 그리고 이 대학계는 사람이었 아메리칸, 프 린계통이면 프랑어, 시만이계통이면 시만아어를 가정에서 또는 그비를 공공체에서 쓰기때문에 능통케 되어있다. 그밖지 못하면 유치원에서 모등학교를 관넘은 때까지 불란서계학교를 다녔다든지, 아메리 혹은 프랑 영국, 미국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각기 그 계통어에 능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다. 하여간 어려 언어를 잘 구사함은 학구생활을 위한 도구로서 매나 아간선 그 문화권을 이해할수 있는 배경에도서 도움이 되는 것은말할필요조차없는 일이다.

중동의 교육중심지로서 카이로를 이야기 할수 있다. 중근동지대에서 카이로로 유학오는 학생들이 많다. 타시 발해서 하나의 국제대학사회를 여기서 이루고 있다. 서구인뿐도 동수일 구두쇠 회에서 많이 이것에 부학자고 있다. 이 각국학생들이 잘 화합이 되고 있는점은 어려기지 아유에 기인하겠으나, 아랍인들의 개방적인 민족성에도 기인한다고 나는 보고싶다.

우리 대학생들에 비해 중동대학생들은 아말이 작은것 같으나 대학교육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다고 생각됐다 우리 대학생들과 같이 배기화 심리같이 공부시는 일지만 생활에 성실한 점은 있는것 같다. 우리 나라에선 해외유학이 대단한 「붐」이 되어있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생각되나 카이로 학생들은 해외유학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않으며, 해외진출에 관계 대학을 노려오고 있지 않다.

대학교육과 수준은 심려이나 시설이나 교과내용등을 볼때 비교해 본다면는 우리나라와 별 동하지 않나 생각됐다. 국가발전이나 교육발전을 위한 여건이 우리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수준이 높지 못함은 여러 자연적인 정치적인 이유로문이라고 말할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질서가 체확립되고 교육과 대학발전을 위한 의욕이 조건들이 정비됐때 이 지역의 교육과 특히 대학사회도 전심히 내용을 발달시킬수 있을 것이다.

보람찬 캠퍼스생활을 위한 특별기획

대학사회의 점검

①대학생의 사회진출
②대학사회의 문제
③ 세계의 대학
④대학생의 미래상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는 전당으로 출발한 오늘의 대학은 내부에……◇
◇……상존하는 폐단을 지닌채 사회불안의 한요소로까지 변모하고 말았……◇
◇……더니, 스튜던트파워의 물결이그렇고 가까운 일본의 젠가꾸련은 건일……◇
◇……본에 걸쳐 일사불란한 조직망을 자시하기도 했었다. 허나 이러한……◇
◇……운동이 국기 (國旗)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에서 사회에 영합필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엘리뜨자체를 주장하는 오늘의 대학생들은……◇
◇……어느 나라이건 그들 특이한 상황에보조를 맞추면서 그들의 조국을……◇
◇……위해 공부하고 행동하고 반항하는지도 모른다. 이러점에서 우리……◇
◇……는 각국의 대학생들은각기 어떠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지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불란서의 대학생활

—불어과 조교수 서 정 철

프랑스의 대학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대학과는 달리 사회생활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의를 배울 고 규정된 프로그램에 따른 시험을 학생들에게 부과한 다음 그에 합격하면 일정한 敎의 학생들에게 증서를 주는 학합만을 위주로 삼는다는 인상을준다.

불란서 대학은 중세때부터 Baccalaureat만 갖고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고, 단지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학사증을 주었고, 대학들이 모두 국립이 됨 오늘날도 그러한 전통을 그냥 지니고 있다. 각 대학이 어느정도의 특색을 갖고 있긴 하지만 수준면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불란서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어떤종류의 학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것이다.

교수는 어다란강말에서자기의강의를끝내며는그것으로서 학생과의 인연을 끝맺는 셈이고 개인적으로 교수와 학생이 접촉을 한다는 것은 주로 학사학위를 마치고난후 논문준비를 위하여 자기가 지도 교수를 찾아 갈 때이다. 그러므로 교수가 학생의 이름을 기억한다든지 학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불란서 대학도 학과특색에서 학년제로, 그리고 종래에없던 분반조직에 의하여 어느정도 교수가 학생을 개인적으로 접하게 될 기회가 늘었지만 언제 그때까지 어떠한 제이의제를 한아름 안고 나온다. 이 페스트 팔고도 도서관에는 담당교수가 연

<린벽한 환경에도 이들의 현실불만은 존재한다>

시험과 강의만을 위해 존재

——창조적 지성 위하여

독서하는 태도 길러——

너고 학생의 창조적인 지성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학년말 시험의 합격율은 수강생의 4분의 1이라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있다. 단지 시험이 어려운 반큼 낙제하지 않고 합격한 학생에게는 학업을해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면 합격생은 자기 시에서는 장학금 반아도 부모에게 조금도 의존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가있다.

프랑스의 대학생활은 우리나라의 대학생활과는 어려가지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에데해서 자세한 언급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곧으로 우리대학생들이 프랑스 대학생활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전공과 교양에 대한 많은 독서와 창조력인 지성의 함양을 쌓는 그들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의 대학생활

중어과 조교수 허 세 욱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태도 배워야

중화사상 필수적으로채택해

어느날 (내가 유학하던) 한 중국유학생을 붙들내어 시내 탐방으로 갔다. 커피한잔을 대접하고난뒤 밀어진 얘기와 느낀바를 얘기하고보다.

나방의 장식을 최첨그레 바라보면서 수줍으로 커피를 떠마시는동이 어쩌면시 필스년을 떠려다가 단생처음 양식을 맡거놓은 그런 경우라 할까? 그는 처음으로 담방에 찾고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태연히 말한다. 카키빈으로 지어입을 그놈에 기념해야놓 구하나 얻고 다니는 기숙사생에겐 그럴법함일이다. 박타이나 밥배를 모르는그 들이 수준으로 커피를 홀쩍 쌀홀짝 떠마시는 센티멘을 무리가 아님뿐아니라 오히려 귀엽기만했다.

어쩌다가 그들의 아유회나 파라가보면 무슨 계임을하던지 전사람의 호령에 따라 고보고보 조용하기만하다. 술병이 굴러다니는 면심 사방지점이 흐날리고에 학생처럼 손뼉치는 소리만 울쩍거를 들렸린다. 어렵게보면 질은이방지 않다든지 심지어 무기력하다든지 말해버릴지 모른다. 그러나그것이 자기 민족성의 배경에서 우러나온 현상이라면 구태여 무어라 말할수 없다.

지금의 대학교육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그 입리류입에서 세계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자기 민족과 문화에 조화하느냐에 특성을 지녀고있다.

전하게 물들인 단청은 말 등을 뚜우기 지나도 색 열을을 지니고있다. 그유구한 역사를 단청감하는 작업을 대학에 장조하고있다. 대학일이학년고양과목에 「부국 이면 교육과 기질은 밑아서인지 항상 민족적인주 월장과 지니고 있는데다가 심심할 정도로 고분고분하다. 캠퍼스안의 교직에서숙제따위라거 얼심히 지키려고든다.

생활자체는 최대한으로절약하고 소박하다. 모든것을 최대한 아끼고 그리 되지 않는다. 현재 국립대학의학생수의 97%가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데 식비는겨우 5불밖에 안된다. 권자도 유학하는 동안 단돈10불로 한달을 살아가는 지방학생을 많이보아왔다.

기숙사의 규칙은 낮 일한 음으로 부랑이 그리 되지 않는다. 현재 국립대학의학생수의 97%가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데 식비는겨우 5불밖에 안된다. 권자도 유학하는 동안 단돈10불로 한달을 살아가는 지방학생을 많이보아왔다.

기숙사의 규칙은 낮 일한 시에서는 정학한 반아도 부모에게 조금도 의존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가있다.

프랑스의 대학생활은 우리나라의 대학생활과는 어려가지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에데해서 자세한 언급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곧으로 우리대학생들이 프랑스 대학생활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전공과 교양에 대한 많은 독서와 창조력인 지성의 함양을 쌓는 그들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대학생과 전학련

경제학과조교수 최 유 길

비현실적구호외치고

한때의홍역으로 여겨

안보조약통과로 분열

<동경대학의 시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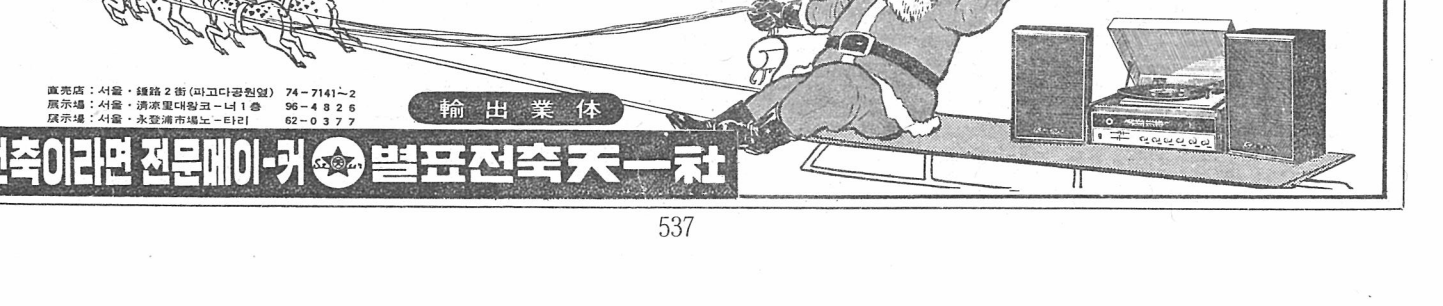
일본에가서 어느박이건 캠퍼스안에 처음 발을 드려놓는 사람은 특히 한국인은 아마 가벼운 놀라움과함께 어리둥절 함을 느끼게 될줄지 모른다. 학생 중 지시린이나 나부끼기, 아무렇게나붙은 어려가지나 무관 혹은 전문의 넋에지 극히 선동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적 정치슬로우건을 쓴 종이가 붙혀 있는것이, 놀에드집 정이나 말이나, 캠게 대학에서생 (1, 2학년) 이 중심이되는 이들 일부 좌파학생 써클의 전심은소비자물가및 공공요금으로부터 정부의 외교정책 문교정책등 국내문제와 「내각타도」등 타당가기하여 인종차별, 전쟁, 미국의 외교정책및 국내문제등 국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대학에 들어오기 한두해밖에 안되는 풋내나는 이들 예과생의 「설익은 푸뇌가 이파같은 광범위한제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조차 할수는 없는것이나 그들 특유의 주장과 자연 장정적이고 직설적이며 선동적인 캠프펫식 슬로건의 나열및 「자기비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그들만 보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있다는 사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것이다.

「전가꾸련」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반대한 그들의 비모스통이 밑시의 아이엔하워 미국대통령의방일 스케줄을 변경시키기에 이름때부터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며 또 작년에 일본 전국에 일명처럼 번질던데 그 중심으로 인하여 그 존재가 아직 건재한것처럼 생각됐다. 그러나 「전가꾸련」의 실체는 소멸되었으며 그들의 활동 방안인지 요원년. 「안보반대운동」을 「전가꾸」부활운동 그들은 「안보조약」이 거경 통과됨에 따라 「패배」와 「좌절」을 맛보았고 「패배」와 「좌절」은 가중되어 중견 실무자의의 지금 지키고있다. 「겐가꾸파」으로 불리고 최근의 좌파학생집단은 기성 명칭방식을 취하여온 지난과의 작 간 보상의 말에인정이다. 물론 그수도 꽤 많다. 스탈린 모택동을 독재자로규탄하고 일본공산당을 패배주의자, 기회주의자 쉬들주의자이라 공박하는 이들은 조성하려하는 기성하의정방은 일본에 없다. 이들중에 무면 조직력 중제도 받지 않고 독불장군격으로 지립 법률하게 제나름대로 발작력으로 그들의 경력을 발상하는 부방자다. 그들의병중이 국립으로 파격하고파 피력이고 모방적이며 창발성나나 없는 것은 이들의 문제점이다. 헬멧을 쓰고 투라카드를 들고 밤을 흘리면서구로를 돌아 돌지며 거리를 질주하는 이들의 행동은 그주장이 너무 비합리적인 과 밖에 결용과 경험을 발산하는 점에서 일종의 스포츠인것같이 보인다.

드디로 있고 현련 정치적이어 지적인 취향도 있으나 그들에게는 제법 번진 스포츠 일지모른다. 그들의 행태는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회지속에의 그것과 어려인으로 상통한다. 그들은 「유물론자」임을 자처하고 「인텔젠」을 경멸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표를 두렵미한 전년론자다. 「혁명」이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하는 설익은 자기나름의 전년속에서 자기도취되어 한때를 보내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는 한두번 행동을 한고는 「나도했다」하면 전심한 사고 이되어 마지 승리자인양 장하게 쏘으하고 참혹한기 상사회 제속에서 제물과 다. 일본과 대학생은 아직 어린에가 홍역을 치르듯이 에과시절에 한번은 이 열병에 걸리는 수가있다. 그리고 홍역을 치룬 아이가 두번다시 걸린지 않는것과 같이 이경우도 그러하다.

그들은 그때를 다 인에있기 좋아하고 자기들이 그리가장 중심한 주에인 체하는 태도이 무엇보다도 심어놓이며 가짐 배경됐던 「파일스 아일」과 중폭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일본을 자랑 그들은 일본을 자랑 업할때면 오백정장의고중 오하여 장인하면서도 결계 성력인 경제사회에 순순히 또 기여치 귀순해 간다. 그러은 어제인 고도산업사회 필연적인 부산물인지 도모른다 *

서울시 우량공산품심사에서 오직 별표전축
만이 우수상을 획득했읍니다.



輸出業体
直売店：서울·鐘路2街(파고다공원옆) 74-7141~2
展示場：서울·淸凉里대왕코-너1층 96-4826
展示場：서울·永登浦市場노-타리 62-0377
전축이라면 전문메이-커 별표전축天一社

PHOTOGRAPHIC EXHIBITION

물질문명의 소용돌이에서 방기된 한인간이 있다. 이미 그에게서 「나중자」는잊어버린지가 오래다. 그래서 낙서투성이의 짚글폭에 홀로 존재할수있는 스스로에 무한한 고독을 느끼지도 모른다.

<Peter Zuria작, Nikon FTN105㎜Lens ASA400>

송년시

친구를 보내는 마음

——一九七0년 제야(除夜)에 바친다

허 세 욱
(시인 본사주간)

한마디 할말가
부드럽게 이 늘음에서 저물음으로 넘어이제는 겨울가지도 깨끗가지도

지인가 부가가를
나이테 새겨져 있는 인이 넘어이제는 보내는 그리움 가슴마저

겨울을 날때서
인가지가 넘어지는 바다속 해보면 이제는 한 인간의 진리속에

고향간 떠나가서
나를 보내던 한인고향의 지평만 확대됨
나나인을 보내는 사람도 떠나간 사람도

성장함 늘을 소나무가
자라간것을 아는 사람도 제일의 아픔이 아픔이
자라간자신을 그때보내 인을 보내보내

밤이 깊자 눈보 식을
한때 검 광복광장은 폐쇄되고 나신자이
나이면 제을 자녀 전부저 자꾸보내

제야(除夜)에 한잔 맞이오
멀쩍 식을 검은을 한잔씩 권하오 자녀들
그 폐쇄되는 밤이 보내보내 나이제

『春嘩普照』를 마치고

중어과부교수 노 동 선

지난 11월28일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가졌던 본과 제2회 중어 연극은 무사히막을 내렸다.

우리 중어과가 제1회 중어 연극을 발표한 이래 바년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연극을 못하고 그저 타과에서하는 연극을 관객으로써 감탄만 바라보아야만 하다가 6년 만에 거두 관중석에서부터 무대를 밟을수 있었다는것이 반시의 자랑이 없지 않으나 마기 만점이라는 효인을 내 세울다면 무사안전은 아닐려지. 어쨌던 6년만에 가진 연극이기에 감회도 한 남다른 바 없지않다.

늦 더위가 제 가시지도않은 지난 8월하순에 시작한 우리 연극이 스상한 싹틈이 돋아지는 이즈음에 와서 결을 내놓고 생각해 보니 한편 아슴아슴하면서도 참 용하게도 끝을 냈구나하는 느낌이 돈다.

과 학생들이 매년 우리도 남들처럼 한번 외국어 연극을 해보자고 자꾸 졸라대는 것에 넘보 마음의 준비도없이 선뜻 노는 체 걸이 나쁘하여금 주에 필 흥역을 치를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나 그 흥역은 진통 끝에 오는 갖진 보람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니까 작년 겨울 우리 교수 몇몇이 2학년 학생들이 시도한 녹을 연극발표회에 초대됨 일이 있었다.

처음 시도하는 그들이기에 걱리는 하면서도 녹음기에귀를 기울이는 동안 어렴지서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남의자식들이 가지고 놀라 정개된 장난감을 갖어다가 그대도록 아파하고 노는 천진스러운에 자식을 바라보는 어버이의심정같아서 그렇지만 나는 마음 한 구석 흐뭇한 느낌이 없지않았다.

그들한테서 전지하고도 열정적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느 때고 내 즐겨나온 장난감을 안겨주리라.

실상 나는 이러한 장난감을 마련해주기 에서 90일간 남 모를 고초와 불안속에서 자신을 괴롭혀야했다. 연극에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그저 노력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출발한것이 그게 아닌었다.

중합에술이라고 말할수 있는 연극을 나 같은 문외한이 지도하게보다 밑천 것이 밝지도 않은 노릇이었다. 그밑바고 이미 시작한 연극을 그만 둘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호리 낭떠이었다. 일찐이 마고는 중원도 없어 들은몇가지 부대상의 기본 원칙과 급한대로 책에서 얻을수있었던 것이다. 그런 밑천을 가지고 부족한 지식이고자 그 위에 세 캐스트들에게상의 연극을 밥히하고 자꾸만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것이내가 지도할수 있는전부였다. 서투른 연극 장독 중세를 나는 여기였다.

그때도 나는 나대로 함가 지 자신이 있었다. 그것은우리 연극이 원어극이라는 점을 구실로 언어 전달만 정확하게 한다면 연극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기술면이나 소 미흡하더라도 내그대게서 아 줄것도 잘았다. 진짜 연극을 하는 사람이 안타던어 빈도 없는 말이겠지만. 그때 서 나는 중어 발음과 대사의 강점을 강아 주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최어도 중국 전공들이 들어서 입사리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낼수 없을 정도로의 음성을 자아 내도록, 이 그러나 이것 역시 생각대로 잘 되지않았다.

그러나 화나는 노력과 인내는 기특하는 마가기 지루어지기 마련이다. 노력에 노력을 꾸준히 거듭해오는 중간 캐스트들의 대사는 말이 다듬어 졌으며 그 중 몇몇 학생은 이제 제법 훌륭해졌이 를 발휘했다. 의상도맡 경도 또 조명도 효과도 좋다 는 용이하여지고 도무도 그리 조에에 얽어놓은 내 가슴 속 깊이 만족기 드거은 그 무엇일는지 모르겠으여주자는 것이다.

이제우리 연극은거의 직업인들의 그것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캐스트들도 이제서야 심각을 느끼는 모양이었고나 자신도 사이비 인각 감독쯤 된 기분이었다. 우리 연극은 거년 만점이라고 하여도 좋다.

18일 드디어, 이렇게 마련된 장난감은 선을 보이게되었다. 3개월간이나 벌려서마련한 장난감이 이제 거우내 이 장진세이다. 그럴때 그것 을 제미 있게 기지고 놀수 있을는지 무척 가슴이 조 왔다. 공연하는 시간만은 그는 수 흘렸 없어 버리고 싶었다.

조여드는 가슴을 안고 세 시간은 흐른 것 같다. 그들 트들이 움직이는 선에 따라 의 앞을 자세는 앞으로 대사를 이어주어 줬기 때 기울고 있었다. 매사나 연기 문이다. 관중석과는 달리 쌀쌀한 한 겨울의 찬바람이자 도는 어둠컴컴한 무대 위에서서 연세 부족되도록 캐스트들의 심수에 나는 불안과 초조에 묻어져 있어이했다. 말, 해 나가던 어렴 캐스트들의 대사가 쉐 입이지 않는다. 그럴때면 관중석에 앉 리지 않을 정도로 대사를이어 주곤 했다. 그때도 결안 필력는 내 발을 무대 마루 바닥을 굴러야 했고 재차여사를 던져주는 내 음성은관재의 관객도 일을 정도로놀아지곤 했다. 그런가하면 어떤 캐스트는 대사나 입기에 에기치 않았던 실수를 범하고서도 용하게 임기응변로 넘기기도 했다. 이를테면 장 오빠 장희며의 기쁘이라고나 함자. 그럴때면 연기의 미스를 의식하면서도 긴장과 초조에 얽어놓은 내 가슴 속 깊이 만족기 드거은 그 무엇일는지 모르겠으여주자는 것이다. 중요교수들이 무대뒤에앉아 이만한 성공이라면서 만족한 관중석에 나가 보라는 심정에 잠시 「주먹주먹」의 미리꾼뭣 처럼 오로 바라보기가 무 웠다. 잠겨자 발음보는 것같은 일인 일보되어 그는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 바라보기의 마지막도 이제 다가왔다는 무대 위에 서기 전 일인 일보되는 이이 연습은 불보는 세트 보시는 정상에 달했다.

18일 드디어, 이렇게 마련된 장난감은 선을 보이게되었다. 3개월간이나 벌려서마련한 장난감이 이제 거우내 이 장진세이다. 그럴때 그것 을 제미 있게 기지고 놀수 있을는지 무척 가슴이 조 왔다. 공연하는 시간만은 그는 수 흘렸 없어 버리고 싶었다.

조여드는 가슴을 안고 세 시간은 흐른 것 같다. 그들 트들이 움직이는 선에 따라 의 앞을 자세는 앞으로 대사를 이어주어 줬기 때 기울고 있었다. 매사나 연기 면에 꼭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럴가 하면 손 수건이 는 꼭으로 올라가는 관중도 적지않았다.

지식의 한 어머니로서 20년만에 친절육을 찾는 마지막 장면 같은 것은 극히중 속적인데가 있으면서도 감동 없이는 볼수 없었다. 그러기에 이 장면에 와서는 캐스트들도 진짜 울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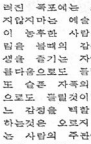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미있는 에피소드는 많일 두번째 공인 때 어우인공 역을 맡았던 학생은 공연 머칠전부터 불려만 들을 가누며 참고 해오다가 그만 이 장면에 와서는 그만 울어버렸다는것이다. 그런한 눈물이 어떠한 감정에서 나왔는지 나는 짜지고 싶지않다. 다만 그것이 관중들에게 진실되게 받아져 그들의 공명을 심수 있었다면 그 눈물은 연기자가 가질수 있는최고의 성원이다. 얼마전 장만을 한때 눈물의 바다로 만든 중국영화 「스만나」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시작작으로 막아오는 죽음을 의식하면서도 연기를 울겨야했던 스만나가 「假戲真演」한것 처럼말이다.

마지막 캐스트소개가 있을 때 캐스트한나 한나의 얼굴들, 나는 지금까지그들얼굴이 내 눈에 그렇게 귀엽고 매건스럽게 보인 적은일었다. 그저 하나 하나 힘있게 안아주고 싶을 뿐이었다.

이즈음대북에서가지도그곳에서 발행하는 연합일보에 소개된 기사를 인하고 가슴한껏 초청 공연을 한것 심과는 저 자보서보서의 간곡한 내용의편지도 날아왔다. 직업 연극단도 아닌 우리고 보니 이러한 성원에 마만 감사할뿐, 이성원을 보탑할 기회는 거의 없을 테지, 떠어도 새로운 장난감을 다시 만들어줄 때까지는….

노력과인내에 의한 대가

보다나은 장난감 안겨줄터



폭 포

교수 수필 정 인 섭 (대학원장)

옛날 이백백은 그의시에서 길이가 3천척이나 되는 폭포를 말하였서, 그것을 하늘의 은하수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나 실제에있어서 이렇게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나 실제에있어서 이렇게 높은 폭포가 있지않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도 이렇게 높지 않지마는 넓이는꽤 장하다. 그런데 자연급상하는 폭포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보통시선에들어갈만큼 알맞아야한다.

한국 금강산의 구룡폭포같은 것은 대표적이지만, 설악산이나 제주도에서나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폭포는자연치표서 참으로 놀만하다. 특히 금강산에는수많은 여러가지 모양의폭포가 있는데 심수도에그럴수있는 폭포경치로는그이상 가능못이 없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세계제일이다. 그리고 큰나라의나 폭포에서 전쟁을마시며 여름의 더위를 잊는 쉬미는 있을수 없는것이다. 물삶이 그리 세지않는 중천 지방의 폭포는 물보기에 적합하여 여름철의 정서를 돋기에 충분하다. 이런 것에 못찾아 가는 사람은 여름의 소낙비로 처마 끝에서 쏟아지는 낙수를 폭포인양 즐길수도 있다.

이와같이 자연경치로서 아름답고 여름에 쳐서로 기쁨을 주는 폭포도 어떤 때는 인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장소가 되기도한다. 그뿐 아니라 슬픔서 심히게폭리는 눈물을 폭포장이라 아린다고도 하니 폭포의 장엄한 정서도 때로는인간의 슬픈 감정에 비유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중앙 사람의산수도에는 폭포그림이 많이나오는데 그 병풍에그린 폭포에는 소리가나 지않지마는 예술적 감정이 농후한 사람은 그그림을 앞에의 감정으로인 생을 즐기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도 들림직이고 또 슬픈 자족의 전주곡으로도 들릴것이다. 그러느 감정을 백할 것이나 하는것은 오로지 감상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형편에 달렸었다. 어느것이 더 허하 웃으며 좋추도 들거물은 지내온 흐름의 고난을 잊어버린듯.

그러나 폭포에 물을있지는 슬픔이있고 폭포를 즐기며 물맞는 사람도 있다. 병풍에 그린 폭포가있이 없다고 하여 이것을 방관하는 나그네도 있지 않는다.

더운 여름 부채에 폭포그림을 그려 그것을흔들며 바람을 내다고 하여 더위를 잊는것도 아니다. 오직 자연은 자연대로 있고 사람인이 상황 감상 그것을 이리저리 이용하는데불과하다. 여름(夏)그저 없자 를 써놓고 더위를 잊으려는 사람은 기이 집작이 가거나와 아름다운자연의 폭포를 눈밟기 위해서 그 근처에 손님을 유치하려는 짓은 차마 볼수가 없다. 계곡에 호르는 적은 폭포도 그대로 간직됐으면 오죽 좋을가. 정승 계곡이나 설악산 가는 계곡에 큰고 작은 폭포들을 인공으로 방해놓는 장사치들의 심정은 실로 저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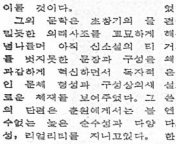
큰 장물을 막아서 벽을 만들어 거기에 생기는 폭포는 그대로 인정해야 될 인공 폭포지만 자연의 계곡을 세멘트나 돌자갈로써 억지로 무인 전막 놓이려는 나라의입으로 이것을 감지시켜야 될을 안다. 그리고 비가 많이올지 홍수 폭문에생기는 임시 폭포는 진정한 폭포가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생기는폭포에 불과하고 치산치수(治山治水) 로서 폭포를 잘 가꾸어야할 장소다.

물질문명의 소용돌이에서 방기된 한인간이 있다. 이미 그에게서 「나중자」는잊어버린지가 오래다. 그래서 낙서투성이의 짚글폭에 홀로 존재할수있는 스스로에 무한한 고독을 느끼지도 모른다.

<Peter Zuria작, Nikon FTN105㎜Lens ASA400>

동인(東仁)의 단편문학 소고(小考)

김 영 찬 (불교2)



동 인 (東仁)

春國이 계통적인 장편을써서 신문학초기를 대성할 무렵 東仁은 김관식에에 순수문학만을 고집하는 단편을써서 우리문학의 새로운 전경과 신문학의 기반을다졌파고 이를 것이다.

그의 문학은 초창기의 흘림듯한 의력사조를 포묘하게 넘나들며 아직 신소설의 티를 벗지못한 문장과 구성을 파감하게 역심하였서 독자로의 문체 형성과 구성상의새로운 체재를 보여주었다. 그의 단편은 춘원에게서는 찾수없는 높은 순수성과 타당성, 리얼리티를 지니고있다. 보기드물게 타파기인 그는그생활 자체가 예술만을 위한 전생에였으며 그의 인도주의적인 휴매니티는 작품을 통해 잘 나타나고있다.

평론가 조연현씨의 말을빌리면 그의 단작에 대해서은 유기를 「그는 어느 특정한 성격에 얽어서도 삼천리 창자리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첫째로 참된 단편작가이기 보다는 오히려 장편작가라고 본다. 그의 단편은의 의로 중편적인것이 많다」고 했다. 사실 동인은 일찍이 단편작가나 장편작가를 규정 짓기란 어려운 일이며또 무대여 구분지을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장편 작가라면 누구에 못지 않게 많은 작품을 내놨으며 단편 도한 어느 특정한 단편작가보다 훌륭가 없는 반듯 타작품에 였다. 다만 동인의 단편이중편적인 것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장편작가라고 이른다면 거기엔 수긍이 가지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동인의 장편을 거의가 역사성은 띤 소설로서 어떠보면 그가 즐겨 쓴 아답유의 역사소설보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춘향전의 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설들이 역사에서 그 소재를 취했거나그렇지는 않더라도 천지모르게 아답을 읽는 기분을 자아낼 수 있다. 그런만 아니라 그는 사실상 역사소설을 허다히 써 온 것이다. 그에 비하면 단편은 관이하게 기지에 넘치는 순수 장작품이다. 또한가 이유는 중편적인 단편이라면 중편적인 단편작가인 것이, 그 문체가단 결하고 단편에 알맞는 흐름을 가진 것이다. 다만 「광언심전」과 같이 그길이로나구성면에서 중편적인 요소를지닌 작품이 상당 수에 이르기 하지만 중편 역시 장르상으로는 「Nouvelle」이라하여 불란서에서는 「Conte」와 같이 단편으로 취급하고있다. 그의 단편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1919년에 「학한자의 슬픔」을 맞시 주요한, 전영택과가이 공간 「쌍죽」에 실으면서부터 이들해 「마음」이 넘을 쓰고 1921년에 가서야 비로소단편문학의 소설들이 역사에서 그 소재를 취했거나그렇지는 않더라도 현저모르게 「金研究伝」이 씌여진 해는 1939년 이었다.

초기 「배따라기」가지는 아직도 신소설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낭만정과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불분명한 묘장 서술도 눈에띈다.

구절도 「피의죄」의 그것과구분되었다해서 또한 잘지 를 못한고 있다. 그리나 「목 숨」「형장」을 거치는 중간 「닥자」에 와서는 구성과문체가 완벽에 이르고 작품의 경향도 탐미주의의 낭만주의에서 엄격한 자연주의의 본시근본인 사회의 불조화와 암흑의 폭로및 고발을 목적 삼은 「김자」아 말로 필명에 이른 단계이라 하겠다.

동인문학의 자연주의는 「모범생」에서 보아볼수있는 고발정신있는 낭만 「Romantisch 정신」에서는 「죽타」가말한 자연과학적 실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K博士는 입구의죽기와 그에 대한 식망의 희열을 그림자 나뭇가지 그림자 이용하여 인공식물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 인공식물의 혈통가 일본이라는것을 안 사람은 모두 무역을 일으키고 만다. 이 작품에서 동인은 실험적인 단계를 비교적 세밀히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사건내용 또한 단조로워서 실감을 자아냈지는 못하고 말았지만 아무튼 그가 어떠자도에서자연주의를 시도했다는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수 없다.

「말가박이 말았다」에서는 유전학적 근거를 들어 자기아내가 낳은 아들이 자기아들이라는 것을 밝으려고 한다. 작품의 전개내용도 흥미있지만 그내면에 깔려 있는 휴머니티 즉 「나」라고하는외사가 말가박도 말았지만 실필로 말았서라는 말에서 주관이 개입가는 해결책원인을 다루는 의도에서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를 위임하려는 인도주의와 또한 실들도 말은 을 것같는놓고 자체가 유전학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멘델가는 말가박이라 키워간 말은 필을 말가박에 자기 아들임을 밝이보려는 주인공의 인간적인 자리를 노리게 않을수 없다. 모름지기 그의 문학은 단편에서보다 말하여 많은 장편에서 다시 단편문학에서 완성을 이루었다.

망설임의 미학(美学)

=김 정 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모름 슬쉐 「망설」이 생겼다.

망설이는 일이다. 이것을 쪽부터 금보고 뜻장부리는 기질이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질로 말아들이기엔 너무 필양적인 것 같아 나는 그것을 슬관에서 출발한 습관이라고 보려고 하여 도한 고칠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부여하여보고 한다.

예를들면 아침 잠자리에서 일찌거리기가 힘들어 한참을 그대로 누워있는 일이라든가, 시작중 일초후에 꼬무실에 들어서는 일이라든가, 주위의 웃음이 그나만 멈춰 빠져 웃는다든가, 메모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서는 일이라든가, 편지를 받고도 한참후에야 결봉을 뜯고 그 수취일부에 답장을 쓰고 그 일없지나 주세뜻에 넣는다든가, 웃음 하나 헤아렸다고 생각한데 그 웃음에 답장감을 받은하고 그 수취일자나 웃음 찾아오는 일이라든가메모는 학생을 보고 아닌는 체하고 생각하다보면 문종이 울린다든가, 전화를 받더니 버렸다든가, 여학생 기자를 놓쳐 귀찮이 하루쯤 놓어 인다든가 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험들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어엿한 내 생활태도로 되어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내 기질이 아니라 습관이고 또 그 습관을 억작감이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그렇게 나쁘 일은 아닌것 같다.

오늘도 난 또 그렇게 놓어진 메뜨톰를 들고 중앙우체국에 들렸다. 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는동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을 줄이야! 등기하나를 부치기 위해 한시간 기카이 기다리면서 나는 비로소 이 말이 그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초만을 아무 혐감(感)없이 흘려보내고 만 내가 오늘 이렇게 비뚜름하게 이제 돌아가야 할 이 사이시간에 수필해 보는데 있는 이유는 무엇일가? 곧년 한해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편지한장을 써보지 못한 내가 산데미처럼 쌓인 카드와 선물들 사이에 서서 새로운 소망(小望)과 기억과 여정이 담긴 그들의 호흡을, 온정이 담긴 그들의호흡을, 온정을내것으로 느끼고 있는 때문이었다. 나는 저 수수한 이정을 지닌 귀여운 선물들이 내 이 초라한 메전차지만 자연주의의 본시근본인 사회의 불조화와 암흑의 폭로및 고발을 목적 삼은 「김자」아 말로 필명에 이른 단계이라 하겠다.

동인문학의 자연주의는 「모범생」에서 보아볼수있는 고발정신있는 낭만 「Romantisch 정신」에서는 「죽타」가말한 자연과학적 실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K博士는 입구의죽기와 그에 대한 식망의 희열을 그림자 나뭇가지 그림자 이용하여 인공식물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 인공식물의 혈통가 일본이라는것을 안 사람은 모두 무역을 일으키고 만다. 이 작품에서 동인은 실험적인 단계를 비교적 세밀히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사건내용 또한 단조로워서 실감을 자아냈지는 못하고 말았지만 아무튼 그가 어떠자도에서자연주의를 시도했다는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수 없다.

「말가박이 말았다」에서는 유전학적 근거를 들어 자기아내가 낳은 아들이 자기아들이라는 것을 밝으려고 한다. 작품의 전개내용도 흥미있지만 그내면에 깔려 있는 휴머니티 즉 「나」라고하는외사가 말가박도 말았지만 실필로 말았서라는 말에서 주관이 개입가는 해결책원인을 다루는 의도에서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를 위임하려는 인도주의와 또한 실들도 말은 을 것같는놓고 자체가 유전학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멘델가는 말가박이라 키워간 말은 필을 말가박에 자기 아들임을 밝이보려는 주인공의 인간적인 자리를 노리게 않을수 없다. 모름지기 그의 문학은 단편에서보다 말하여 많은 장편에서 다시 단편문학에서 완성을 이루었다.

자연주의면서 낭만적 기질

반면 주관성에 치우쳐

도토리 순

—추 다 니—

겨울이 가면 봄이

김 미 자 (영4)